

| 글. 김창길 Kim, Chang-gil
·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건설공사 안전관리, 설계자에게도 책임이...

Security Management at the Construction Sites, Designers are Responsible for, Too



경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창우정 종합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쌓았다. 주요 작업으로는 번동 글로리타워, 부산 락앤스티치공장, 박순웅정형외과, 춘천감정리주택, 화성 조암리주택 등이 있으며, 2011 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2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2012 신진건축사상을 수상한 바 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4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리체계는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에서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순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 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Design for Safety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영국)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한다.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한다. 착공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제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시공단계에서는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파트너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 당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신고 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의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새로운 안전체계가 대다수의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실제로 높이 1.5m 작업대에서 추락해도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규모 현장도 건축사인 감리자의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건축사로서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예방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건축사협회 또한 국토교통부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새로운 체계에 대한 빠른 대응이 촉구되며, 지금도 공사 중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시공사에서 착공 시 안전관리 계획서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의 서류를 제출하나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사가 건축물의 안전 및 시공에서도 책임을 저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세월호 사고, 마우나리조트 사고, 아산오피스텔 붕괴사고 등 잇단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형 사고 이후 부모님들이 국가에 바라는 바람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람과도 같다고 본다. 이렇듯 우리 건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

